

강진 성화대 폐교 1년 지역경제 직격탄

주인없이 방치... 주변 상가 잇따라 문닫아 대책 시급

지난해 폐교된 강진군 성화대학이 주인 없이 방치되고 있다. 폐교로 인해 주변 상점들도 잇따라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2월29일 강진 성화대학에 대해 폐교를 명령한 뒤 문을 닫았다. 강진군 성진면 성화대학 캠퍼스는 폐교 1년을 맞으면서 건물 곳곳의 페인트 도색이 벗겨지고 운동장 등에는 잡초가 우거졌으며, 학교 안에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2년 전만 해도 입학하려고 갖 거속에 사에 들어온 학생들과 방학을 끝낸 학생들이 개학 준비를 하느라 북적거

렸을 시기지만, 1년 만에 폐허로 변모한 것이다. 성화대학은 그동안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선정한 모법 무법인의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나 감정가격이 220억원에 달하면서 매입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강진군의 입장에서도 성화대학은 새로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성화대학이 폐교되면서 인근 상가 가 직격탄을 맞았으며, 대부분의 상가들이 임시휴업하거나 셔터를 내린 상태다. 6년째 정문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여·55)씨는 “문 닫은 식당이 벌써 20여 곳이 된다”며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이렇게 그냥 버

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교측은 교과부에 의해 학교 문을 닫았지만 개교 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한 적이 없는 등 목포 등 전남 서남권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요가 있어 다른 대안 교육시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성화대학 관계자는 “폐교 전 성화대학은 전국에서 중위권 정도의 전문대학이었다”며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자금 유용,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개선되면 얼마든지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과 지역민들은 성화대학 자리에 지역발전과 평생교육의



1일 오전 폐교 1년여가 지난 강진 성화대학 전경.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이 없어 대학 내는 쓸쓸했으며, 인근 상가들도 폐업하는 등 대학 내외가 쓸쓸년스럽게 방치돼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기회제공의 장인 교육기관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폐교 후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지역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구 성화대학 건물 활용에

대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의 연수기관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식영정서 송강 정철 작품세계 조명

담양 '생생 가사체험' 참가자 모집

담양군이 이달부터 '송강 정철의 자취를 따라가는 생생 가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송강 정철의 자취를 따라가는 생생 가사체험'은 송강 정철의 삶과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담양가사문학에 대한 탐구와 전통문화사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담양군과 담양문화원이 주관해 오는 9월까지 매달 1차례씩 무료로 운영된다. 체험 코스는 송강 정철의 생활 근거지이자 창작공간이었던 환벽당, 식영정, 송강정, 면암정 등을 중심으로 마을길 투어와 생태 환경 체험, 정자콘서트, 문화재

퀴즈 골든벨 등으로 짜였다. 참가자는 전국의 학생과 일반인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선착순 40명을 모집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양문화원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생생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해 예술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송강 문학 콘텐츠에 활력을 불어넣는 협력형 참여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담양만이 갖추고 있는 가사 문화와 정자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함평 난 명품 대제전 지난 31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에 참석한 안병호 함평군수(맨 오른쪽)와 이상일 명예대회장(가운데) 등이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대제전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김성철(서울)씨의 '황화소심(품종)-보름달(작품명)'이 차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인 최우수상에는 강응룡(서울)씨의 '중투복색화 - 태극선'과 이은권(안산)씨의 '호피반 - 사계'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도 화에 98점, 염에 53점 등 모두 151점이 산림청장상, 전남도지사상, 함평군수상 등 각종 상을 받았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나주축협 문어발 확장에 농민들 '피멍'

오리훈제·대형마트 이어 비료사업까지 뛰어들어 주민 반발

나주축협이 지역민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 영업 확장에만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리훈제 가공공장에서 대형마트, 비료사업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유사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일 나주축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오리훈제 가공공장이 최근 훈제오리에 대한 소비가 줄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리 사육농가들의 출하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축협 측은 타 지역에서싼 가격에 오리를 반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당시 조합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관련 직원들이 배당금까지 나눠

가졌으며, 이에 대한 말썽이 일자 다 시 돌려주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후 경영상손실에 대해서는 손해의 10%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협은 이 밖에도 주변상가와 재래시장 측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체 대형마트를 개장했다. 이로 인해 시장과 영세슈퍼마켓의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대신 축협 측은 하루 4000여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명목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아 비료사업에까지 뛰어들면서 지역업체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나주=정철기자 chung@

나주시 역시 같은 비료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영세민간업체보다 지급력이 뛰어난 축협의 신규사업 진출을 촉진지원해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업체와 영세업체들의 출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축협관계자는 “오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줄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잉생산을 줄이고 있고 매장진입에 있는 수입 산들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친환경비료공장의 경우 과잉생산으로 관련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정철기자 chung@

전북

순창, 의료기관 방문 지도·홍보 의료비 4억6000만원 줄였다

순창군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과다이용과 약물 오남용, 중복투약 의료비 및 장기입원으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크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9억3800만원이었던 의료비가 지난해 14억7800만원으로 4억6000만원을 절감했다.

군은 해마다 증가되는 의료비로 인해 복지행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입원의 경우 매년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대상자와 의료기관을 방문해 입원의 적정성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보호자의 요구 등에 의한 입원, 속직목적으로 가족 단위 전체 동반으로 이루어진 장기입원

이 높았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필요이상으로 진료료를 받아 약을 먹지 않고 집에 쌓아 놓는 등 의료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순창군에서는 진료비 감소율을 위해 의료기관 현장방문 등 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면담 의료급여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집수리사업 연계, 의료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와 홍보에 힘써온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

전주,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3개월간 지원

전주시가 부양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부딪힌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빠진 이들 가정에 3개월간 생계비를 비롯해 의료비(최대 300만원), 주거비(최대 1년), 교육비(수업료 등), 장제비(75만원), 해산비(50만원) 등을 지원해준다.

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11억여원을 마련했다.

우선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한 달간만 지원됐던 의료비도 퇴원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재량으로 지원 가능한 위기사례도 명시했다.

단수·단전된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가구,

가족 병간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가구, 주 소득자의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아이를 동반한 재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전막집, 다리미, 트럭 등을 전전하는 가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가구도 포함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신상근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갑작스런 위기에 내몰려 자살까지 선택하는 상황을 막고자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한다”며 “이들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우선 지원한 뒤 행정 절차는 나중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이고 4인 가족 월 소득이 231만원 이하면 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

기본연봉제 전 기관 확대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 등 16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각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고액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평가는 31명의 평가실사단이 서면평가 결과와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며 벌인다.

고객 설문조사도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간 9개 기관에서만 적용하던 기본연봉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급도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4.1 무주장날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1일 오후 흥남표 군수와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무주읍 반딧불시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시가행진 등을 하며 4.1 무주장날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행뉴스

단신

군산농기센터, 농업미생물 상시 공급체계 구축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 선호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농업미생물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009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농업미생물이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을 억제하며 과일의 당도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 농가의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사용 농가가 4배 이상 늘어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기존 농업기술센터 1개소에서 일괄 공급하던 방법을 각 읍면동의 농민상담소 11개소에 미생물 공급대를 설치, 농가가 언제라도 미생물을 지역에서 병해충을 억제하며 과일의 당도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 농가의 수요량이

남원, 법원앞 공영주차장 완공

남원시는 법원 앞 도로 협소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법원 앞 공영주차장을 최근 완공했다.

모두 58대를 주차할 수 있는 법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그동안 인도로 주차를 해왔던 인근 상가 및 사무실 차량의 불법 주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원이 위치한 응성로는 지난

2009년 차선폭을 줄이고 인도 폭을 늘리면서 시내버스 교차로 어려워졌고 추진한 법원 앞 공영주차장을 최근 완공했다.

모두 58대를 주차할 수 있는 법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그동안 인도로 주차를 해왔던 인근 상가 및 사무실 차량의 불법 주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원이 위치한 응성로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해 군복인 소나무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고창, 9억 들여 도로변 쌈지공원 조성

고창군은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확보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쌈지공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고창을 시가지 내 국·공유지에 2억원으로 2400㎡ 규모의 녹색 쌈지공원을 마련하고, 아울러 아산·상하·공음면 등 총 8km 구간에 7억원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선보인다. 녹색 쌈지공원은 그동안 내대지로

존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요인을 제거하고, 친환경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고창읍에서 동호해수욕장 구간 국지도 15호선에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해 군복인 소나무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있다. /고창=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

남원보건소, 이주여성 무료 건강검진

남원시 보건소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남원시에 이주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갑상선기능검사 등 15개 항목에 대해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남원의료원이 위탁 추진한 이번 건강검진 대상은 40세 미만 이주여성 46명으로 읍면동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받아 선정됐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지난해 61명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나 자궁질환이 있는 11명이 조기발견돼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한 바 있다.

시 보건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대상자 검진을 홍보하고 검진 시 의사소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